

2874개 부스 참여... 게임의 긍정적 이미지 전한다

‘지스타 2018’ 11월 15일 개최
메인스폰서 ‘에픽게임즈’ 선정
중소상생 프로그램 등도 마련



김용국 한국게임산업협회 사업국장이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지스타조직위원회

국내 최대 게임전회 ‘지스타 2018’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앤리조트에서 설명회를 열고 약 2개월여를 앞둔 지스타2018의 추진 계획과 참가사 현황을 발표했다.

17일 기준, 지스타2018에는 현재 2874부스가 참가 신청을 했다. 이는 지난해 최종 2857부스를 앞지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장은 “이번 지스타 BTC관은 조기신청 접수 5일 만에 80%가 소진되고 10일 만에 마감됐다”며 “BTB관 역시 해외 각 국가에서 공동관 참여가 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BTC관은 자리가 확정된 대형 참가사

를 제외하고 현재 중소형 부스와 이동 동선에 대한 세부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B, TB관 또한 이미 참가 의사를 밝힌 해외 공동관들이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성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스타2018의 공식 슬로건은 ‘게

임, 우리의 별이 되다’라는 의미를 담은 ‘Let Games be Stars’로 확정됐다. 게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싶은 의지를 표현했다고 조직위 측은 설명했다.

메인 스폰서로는 해외 기업 최초로 에픽게임즈가 선정됐다. 이번 지스타를 통해 처음 BTC관에 부스를 마련한 에픽게

임즈는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며 조직위와 함께 벡스코 전시관과 행사장 인근, 부산 시내 등 지역에서 지스타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장은 “해외 기업이 최초로 메인 스폰서에 참여한 것은 지스타가 글로벌 게임 전시회로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파트너로는 4년 연속 트위치가 선정됐다. 전 세계 게임 이용자들은 트위치의 콘텐츠를 통해 지스타의 현장을 볼 수 있다. 특히 트위치의 파트너 스트리머들이 지스타 현장을 방문하고 행사에 참여해 게임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진 EA의 공식 e스포츠 행사도 열린다. 참가사들의 경우 전시장 내부에서 다양한 e스포츠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박람회 또한 기존의 대면 방식을 탈피해 취업 팁을 제공하는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준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

련된다. 조직위는 올해 ‘Big Indie Pitch & Awards’ 행사를 추진하고 국내외 해외 인디게임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해외 기업들의 참여도 눈길을 끈다. 올해는 메인 스폰서인 에픽게임즈를 포함해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도 다수 참여한다. 홍콩과 대만, 폴란드,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 국가들도 공동관이나 사절단 형태로 지스타 현장 방문에 나선다.

강신철 조직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집중해온 해외 기업과 국가 유치 노력이 올해부터 조금씩 빛을 보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며 “앞으로도 관람객들과 참가사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스타 알리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GAMES가 주최하고 지스타 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지스타 2018’은 오는 11월 15일~18일 4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김민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홈&쇼핑 사회공헌기금 3000만원 전달

홈쇼핑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최종삼 대표이사 취임 후 보여주기 식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해 공유가치 창출(CSV)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사회공헌 방안 모색에도 힘쓰고 있다.

홈쇼핑은 최근 서울 강서구와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역사회 독거노인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실버세대를 위한 가정 내 안전관리 서비스인 ‘리본실버케어서비스’에 쓰일 예정이다. 리본실버케어 서비스는 고령자를 위한 가정 내 안전 서비스로 실시간 활동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서울 강서구 등 지역 내 치매, 우울증 및 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노인 45명이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사단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홈쇼핑 본사가 위치한 강서구 관내 저소득가정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학용품, 휴대용 선풍기, 이어폰 등으로 구성된 스쿨키트를 전달하기



홈쇼핑의 ‘스쿨키트’

도 했다.

홈쇼핑은 지난 2016년 말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화 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공헌센터’를 발족·운영하고 있다. 2012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사회에 환원한 금액은 이미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사업 집행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재해·재난 ▲방송 ▲교육 ▲상생 마케팅 등 주요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분야별로 가장 요구가 많고 본래의 의미에 적합할 만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홈쇼핑이 제작해 고객들이 구입한 ‘착한달력’ 판매금 전액을 기부함으로써 고객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명절증후군 ‘벤포벨’로 해소하세요”

Advertorial Corner

중근당, 육체·눈 피로, 근육통 개선

매년 명절이 끝나면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명절증후군이란 명절기간 동안 겪는 각종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일종의 후유증이다.

명절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과 증상으로는 교통체증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눈의 피로와 근육통, 무리한 가사노동으로 인한 어깨결림·허리통증 등 신경통이 있다. 이러한 명절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휴식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자주 풀어주며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중근당의 ‘벤포벨(사진)’은 활성비타민인 벤포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코엔자



임Q10, 비타민C, D, 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 알로 명절증후군을 해소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벤포벨의 주성분인 벤포티아민은 육체 피로와 눈의 피로, 근육통 개선에 효과가 우수한 활성형 비타민B1성분이다. 일반 비타민 B1 제제보다 생체이용률이 높고 복용 시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벤포티아민 외에도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신경통 해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6, B9, B12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B5, B6가 들어있다.

벤포벨은 용담 성분인 UDCA를 30mg 함유하고 있어 명절기간 가족끼리 가진 술자리와 피로누적으로 저하된 간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UDCA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담즙분비를 촉진해 독성 담즙산을 제거하는 등 정상적인 간기능을 돕는다.

이 밖에도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인 이노시톨,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아연, 비타민C, D, E 등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성분이 최적의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근당 관계자는 “벤포벨은 비타민 B군이 1일 섭취 최대 분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간기능 개선 성분까지 들어있어 명절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육체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며 “만성피로와 면역력 및 체력 저하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의 평소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셀트리온 의약품 생산설비 ‘이상없음’

美 FDA실사에서 개선 확인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제1차 실사 결과 의약품 생산설비와 제조 관리 등에 ‘이상없음’을 확인하는 최종실사보고서(EIR)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FDA는 지난해 5월 정기 실사 후 의약품 생산설비 및 제조 과정의 추가 보안을 요청하는 워닝레터(Warning Letter)를 발행한 바 있다. 당시 FDA는 완제 공정에서 바이알(약병)의 고무마개 접지 문제와 이로 인한 오염 가능성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7월 재실사를 통해 지적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했으며, 이번에 최종실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재실사 결과 셀

트리온은 선진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에 준하는 공정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체 스스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VAI’(Voluntary Action Indicated)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루스마’, 유방암 및 위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허쭈마’의 FDA 심사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됐던 cGMP 공정 관련 이슈가 종결됐다고 판단한다”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cGMP 규정 준수로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에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본상 수상

이대목동병원은 인공방광센터가 지난 17일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보건산업 발전에 앞장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한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이번 수상자는 전국의 종합병원과 특화병원, 한방병원, 제약회사 등 의료기관 및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 축적과 함께 정부 및 관련 협회, 대학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는 센터장인 이동현 비뇨기과 교수를 중심으로 인공방광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

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공방광수술 건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최고의 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동현 센터장은 인공방광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차별화된 인공방광수술법으로 방광암 환자들의 큰 호응을 받아 왔다. 실제로 이동현 센터장은 초창기 8~10시간이 소요되던 수술 시간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의 발달을 통해 4~5시간으로 단축시켰다.

또한 인공방광수술을 받은 환자는 소변 주머니를 차야 하는 요루형성술을 받은 방광암 환자들과 달리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고, 정상적인 성생활도 가능해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의 경우 인공방광수술을 시행해도 남성은 발기 능력을 보존시키고, 여성은 병기에 따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가 지난 17일 진행된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이대목동병원

라 질을 보존시켜 여성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장은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통합진료 시스템으로 치료 성과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환자별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 대표 인공방광센터로서 해외 방광암 환자 유치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